# 광주에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 산업부 장관, 공기산업 육성 협력 MOU 참석

## 광주시와 LG전자 · 광주테크노파크 간 체결

##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해"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인해 공기질이 나빠진 가운데 해결책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에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공기산업 육성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 공기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날 MOU는 광주시와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 간에 체결됐다. 지역 산·학·연과 LG전자 간 공기산업 핵심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생산·제조 분야 협력을 통한 광주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광주시와 LG전자는 그동안 가전분야 R&D협력, 학교 내 공기청정치 보급사업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성과가 공기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MOU 체결로 이어진 셈이다.

성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산업 생태계 회복과 R&D·인력양성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기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 산·학·연 등 혁신주체와 LG전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생태계 활성화 ▲초기판로 확보 ▲해외 시장개척 ▲지원체계 등 공기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형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도기업과 기업연구소 등 유치를 통한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 학교 등에 공공조달을 확대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를 지원하고 민수시장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해외 규격에 맞는 국내 시험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제품 발굴, 디자인, 인·허가, 마케팅전략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지원한다.

특히 기업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기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성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이 광주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의 주춧돌이 돼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 이어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열린 '에어가전 기업협의체 입주행사'에 참석한 성 장관은 에어가전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중소기업 및 에어가전센터 입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성 장관은 "광주가 공기산업을 선도하게 된 것은 에어가전 기업 관계자들의 과감한 시도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에어가전센터에 구축된 실증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 출시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은홍 기자

# 전남 친환경 쌀 미국 수출길 오른다

## 해남 친환경 무농약쌀 선적 행사

전남 친환경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전남도는 18일 해남에서 친환경 무농약쌀 미국 수출 선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은 미국 T그레인 회사와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식) 간의 수출계약(2017년)에 따른 것으로 올해 수출 계약물량 40톤 중 20톤을 1차로 선적 출항한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20여 농가가 250ha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9톤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현지 반응이 좋아 올해는 40톤으로 물량을 확대 수출하게 됐다.

수출되는 친환경 쌀은 천연가바 배아미로 두뇌활동 개선 및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이로운 가바(GABA)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영양 등이 풍부한 고품질쌀이다.

수출 가격도 kg당 4000원으로 일반쌀(kg당 1900원~2300원)에 비해 매우 높은 특수미 단가로 결정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물론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1번지 전남도내 '18년산 친환경(무농약·유기농) 쌀은 3만1000ha의 인증면적에서 13만8000톤이 생산돼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 65%를 선점하고 있으며, 전남쌀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쌀의 수급안정은 물론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쌀 수출이 가능한 농협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수출박람회 참가 유도 등 다각적인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예비창업자에게 날개를 달아 주다"

## 광주전남중기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9기 입학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예비창업자를 선발하고,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와 면접 등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된 예비창업자 25명이 참석하여 성공창업을 다짐하였다.

'소상공인 신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3년내 폐업률이 62%까지 급증한데에 따라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전문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과 점포체험실습 등 총 5개월에 걸쳐 운영한다.

창업 분야 교수, 컨설턴트, 성공한 선배창업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론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4주간 진행되고, 이론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16주간 체험점포에 입점하여 실제로 점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을 신청한 교육생들은 교육 결과와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청장은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험점포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생생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하는 만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은홍 기자

# "K-Food, 한류콘텐츠 활용, 글로벌 한류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CJ ENM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 농식품 글로벌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와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한류 행사,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소비확산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aT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활용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홍보대사로 한 미디어홍보, 케이팝(K-POP)과 연계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음식품평회(K-Food Fair), 한류스타 이승기의 방콕 팬미팅과 연계한 딸기 홍보마케팅 등 덕분에 지난해 아세안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8.5% 성장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미주 지역으로 확산 중인 글로벌 한류를 활용한 K-Food 소비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금융당국, 이르면 내달 카드수수료 현장점검

## 대형가맹점들과 갈등 관련 부당 책정 확인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결과와 관련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대형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이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대상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이 이슈가 된 만큼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현장 점검은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하반기에 실시돼 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의 경우 현장점검을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토록 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매출액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한 뒤 500억원 초과 구간 상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제동을 건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인데 결국 카드사들은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적격비용(원가) 이상의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고, 카드사에 대한 점검 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적 처벌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뉴시스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